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미가서**

## 공의를 외치라

(미가 3:1-12)

원로목사 **이종윤**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까지도 심하게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락의 자리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샅을 위하여 예언을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교회는 해야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또한 돈으로 타인의 지지를 얻는 정치인과 공의를 잃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한탄하며 회개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는 마침내 공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 1. 지도자에 대한 심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1절).

다스리는 자의 존재이유는 세상에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의를 외면하며 짓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미워했고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니 그 나라가 갈 길은 자명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어두운 사회라고 합니다. 반면 선한 사람들이 은혜를 힘입고 득세하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하게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4절).

탐심이 가득한 세상의 백성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나올 뿐입니다. 이와같이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나라 전체가 축밭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 2. 선지자의 부패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5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입에 무엇을 넣어주면 평강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외쳤습니다. 물질에 가장 초연해야 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개’라고 하며 개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빌3:2).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저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6절).

거짓 선지자는 참된 비전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8절).

미가 선지자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이스라엘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패한 선지자들이 돈에 팔려 인간의 소리를 할 때 미가 선지자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와 야곱의 허물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할때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 3. 통치자의 죄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9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했습니다. 도적은 어둠과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10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벽돌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죄로 건축합니다. 다시 말해서 잔인한 행위와 더러운 죄를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건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위해 정치를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재판관 노릇을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11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딤후6:10). 모든 부정과 부패 뒤에는 돈이 있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공의가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12절).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죄인을 회개하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 그런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주실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공 동 의 회

오늘 2부 예배 후 12시 30분

## 서울교회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대응의 건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30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열린다. 이번 공동의회의 안건은 ① 서울교회 정관 일부 개정의 건 ②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대응의 건이다. 『공동의회』란 장로교회에서 『당회』와 더불어 개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회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다. 공동의회는 모든 성도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성도들은 교회 앞에 놓인 큰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많이 참석하기 바란다. 또한 공동의회로 8층 만나홀 점심배식시간이 오전 11시~12시까지, 오후 1시 30분~2시 30분으로 변경된다.

# 2017 사명자 대회 50일간 대장정 시작하다

- '말씀'과 '기도'운동 : 10.8(주)~11.26(주) 50일간
  - 특별새벽기도회 : 11. 20(월) ~ 25(토) 새벽 5시-6시
- 강사 : 김성봉 목사



2017년 사명자대회가 지난 주 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서울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가. 말씀

- 1) 매일 말씀을 읽는다. (신약성경 통독)
- 2)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 3) 말씀을 읽은 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 나. 기도

- 1) 자유키도 : 50일간 개인별로 기도한다.
- 2) 느헤미야기도 : 느헤미야가 수 일동안 슬퍼하며 금식한 후 무너진 예루살렘성벽을 52일만에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서울교회 재건을 위한 기도를 매일 3분 이상, 50일간 진행한다.

10/15 (월)	막16	눅1	눅2	눅3	눅4	눅5	눅6	-
10/16 (화)	눅7	눅8	눅9	눅10	눅11	눅12	눅13	-
10/17 (수)	눅14	눅15	눅16	눅17	눅18	눅19	눅20	-
10/18 (목)	눅21	눅22	눅23	눅24	요1	요2	요3	-
10/19 (금)	요4	요5	요6	요7	요8	요9	요10	-
10/20 (토)	요11	요12	요13	요14	요15	요16	요17	요18

▲ 금주의 사명자 대회 성경통독표  
- '성경통독표는 매주 절취선대로 잘라서 본당 앞 기도신청함에 넣으면 된다.'

## 10월 세례식

오늘 찬양예배 시

2017년 10월 세례식(유아세례, 개종, 입교)이 오늘 찬양예배시에 거행된다.

## 서울강남노회 제 61회 정기노회

10월 17일(화) 오전 9시, 소망교회

서울강남노회 제 61회 정기노회가 10월 17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망교회(김지철 목사 시무)에서 모인다.

##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10월 22일(주) 오전 11시~오후 4시

유·초등부에서는 10월달에 가을성경학교를 10월 22일(주)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중·고등부 말씀 프로젝트 "도전! 성경골든벨"

10월 22일(주) 중·고등부 예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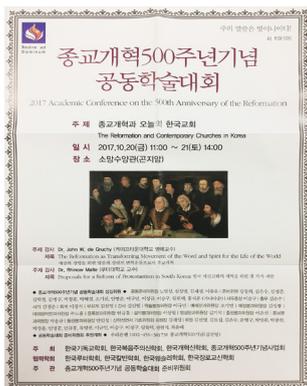
중·고등부에서 10월 22일(주) 학생들의 신앙과 성경 지식 향상을 위해 말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도전! 성경 골든벨』을 개최한다. 중·고등부 예배 후에 열리며 범위는 베드로전서, 마가복음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아가페타운 직원채용 공고

- 채용분야: 아가페타운(호산나 대학) 건물 및 시설관리
- 채용인원 : 남자 1인
- 지원자격 : 1종 보통면허소지자, 숙직근무 가능자, 시설관리 경력자 우대
- 근무조건 및 급여 : 개별 면접 후 협의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제출처 및 문의처 : 호산나대학 행정실(031-585-9184~6)
- 제출기한 : 2017년 10월 23일(월)
- 제출방법 : 이메일(csk0837@naver.com)  
팩스 : 031-584-9106

##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공동학술대회

2017. 10. 20(금) ~ 21(토) 오후2시 / 소망수양관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한지 500주년 되는 해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학술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사업회 주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의 토대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 그리고 하나 됨을 위한 역사적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도움과 참여를 바란다.

## 중·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2부예배 후, 504호)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자녀순(수험생, 유학, 군복무)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2017 사명자대회 대회사

# 하나님의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모든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 (God's Ministry)'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자신의 목회를 소개하시지 않았고, 그의 목회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셨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시작과 계시의 사역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교회 목회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par excellence)목회자이시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목회를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에게 신실하게 밝혀내셨고, 아버지께 아들로서 그들을 소유케 하셨다.

하나님교회의 목회는 성령의 은사로 무장된 이들이 우리 주님의 목회에 부름을 받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목회 사역의 주된 부분은 아버지를 위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아버지를 향한 것이다. 세상이 목회의 의제(agenda)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의제(議題)로 삼는 것이다.

\*\*\*\*\*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우는 마르틴 부처(M. Bucer)는 개혁교회의 4중 직분인 목사, 교사, 장로, 집사제도의 창시자로 교회의 치리(권징)제도를 만들어 교회의 윤리를 향상시키는 일에 공헌했다. 그의 '참된 목회학'이라는 책에서(1538) '다양한 목회자'를 예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시고 사용하셨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안수 받은 목사만 목회자라 부르고 있으나, 교회의 일상적 목회자들(gemeine diener), 즉 목사들, 교사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을 교회 전체에 의해서 위임된 목회자들이라

불렸다.

주님은 가르침과 영적 치리 사역을 위해 사도와 교사, 도와주는 이와 다스리는 자를 세우신다.

\*\*\*\*\*

우리는 바야흐로 자기 남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칭 이 시대의 선지자요 능력의 사자며 민족의 지도자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영광스런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주저했고, 사울은 왕으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려는 사무엘이 찾았을 때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 버렸다. 모세는 자신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노라며 광야로 물러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끌어내시어 세우셨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목회에 참여케 하시려고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불탄 포도 넝쿨 같은 버림받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

벨사살왕의 사람됨과 그의 소행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끄럽게도 근이 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 안 될 사람이 있겠는가? 은총으로 살고 있는 주제에 심사 기준에 합격자나 된 것처럼 오만해 하지 말고 감지덕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 받은 사명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들이 되자!



사명자의 기도

##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소서

노문환 장로 (당회 서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잠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내버려 두시면  
또 넘어지고 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하는 것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위선을 제거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발호를 막아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며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으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시민양성 - 유초등부

# 말씀 안에서 꿈꾸는 아이들!

유초등부 예배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 오던 친구들도 다시 나오고 새친구도 계속 오고 있어요. 유초등부 예배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입니다.



▲ 2분기 주보 모으기 시상식을 했어요!



▲ 우리 유·초등부 예배 찬양대입니다. 바이올린 플룻 등 악기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사진: 장윤기 집사 (유·초등부 부장)

▲ 아직 어리지만 우리 예배는 우리가 담당합니다. 예배 기도인도도 우리가 드리고요. 헌금위원회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월12일(목) 제17회 한국군 선교신학심포지움을 열고 기조강연을 했다. 20일(금), 21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인사의 말씀과 개회예배 축도를 한다.

■ 금주의 식사 : 정완진 집사 김희순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10월 1일 주일에는 각 학년별 성경암송대회가 있었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두 암송하였답니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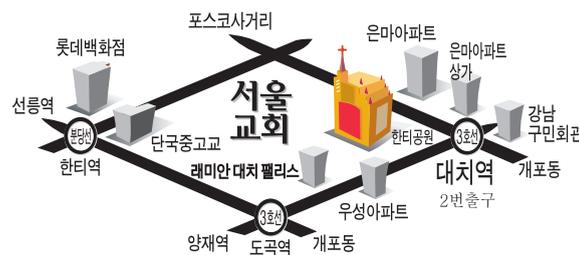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7 사명자대회(10월 8일-11월 26일)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서울교회가 노회와 총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 형제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3.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본 당 II, III 층
	I 부 예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